

예로 들면, 이 모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단지 이중구조라는 점에서는 헬멧과 같지만 통기성을 지녔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두부로부터의 발한으로 인해 생기는 모자 내의 열기와 모자외피에 의한 2차 복사로부터의 축열을 통기성을 줌으로써 환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통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구조는 모자의 차양 안쪽과 머리띠 사이에 출입구를 만들고 외피의 두정부(頭頂部)도 원형출입구로 만들어졌다. 두정부 원형구멍 안쪽에는 열복사, 즉 태양광들이 직접 두부에 닿지 않도록 넓은 원판으로 가려져 있다.

이 통기성 모자를 마네키에 착용시켜 모자의 상부로부터 두정부 부위에 약 90 mW/cm^2 의 복사열을 주고 실험한 결과, 마네키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자의 하부로부터 두정부로 흐르는 유속이 최대 0.12 m/sec 를 기록하였고 이를 통기량으로 환산하면 약 9 l/min 로 10초마다 1회 정도의 비율로 환기되는 결과였다.

그리고 시속 4 km 로 걷고 있는 상태를 가정한 실험에서는 최대 28 l/min 의 통기량으로 정지

상태의 3배가 되는 환기량이었다.

대기중에는 보통 $0.3 \sim 0.4 \text{ m/sec}$ 정도의 기류가 있게 되는데, 이 때에도 약 15 l/min 의 통기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모자의 각 부위의 온도는 두정부가 한시간 후에 약 50°C 에 달했는데 이와함께 모자틀 내외의 온도도 상승하여 약 37°C 였다. 이 때 실내온도는 32°C 로 한여름의 외기온도와 맞먹었다.

이와같이 열복사에 있어서 이 통기성 모자는 연통과 같은 역할을 갖고 있어 모자들의 온도가 상승하면 모자내의 공기를 덥혀 상승기류가 생기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복사가 있으면 이중구조의 특징에 의하여 자연환기를 일으키게 되며 여기에 기류가 닿으면 환기능력이 커지게 되고 모자내의 열기와 축열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같은 통기성 모자가 완전한 보호용 모자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위생적 결점을 개선하는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부, 협회 간담회 개최

협회는 6.7 노동부 안영수 산업안전국장과 김성중 보건과장을 초치하여 최근사업장에서 야기된 일련의 직업병 발생에 관한 대책과 앞으로의 예방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동 간담회에서 산업의 전문제도와 정도 관리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를 갖고 정부와 협회가 공동 노력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협회, 영세사업장 무료 작업환경 개선 지도

당 협회는 산업안전보건장조기간 중(7.1-7.31)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 불량사업장(각지부 및 센터 6개 지역 사업장)을 선정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지도와 근로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지도를 무료실시 한다.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대한예방의학회(회장 김병우, 전남의대 교수)

는 91년도 춘계학술대회를 5.24 국립보건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학술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심포지움 I : 만성퇴행성 질환
- 심포지움 II : 산업장 집단보건관리
- 예방의학전문의제도 연구위원회 중간보고
- 심포지움 III : 지방보건행정
- 외과대학에서의 예방의학교육

산업보건계 소식

☒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채연 교수는 지난 6.1 동 대학교 개교 12주년을 맞이하여 동 대학교 대학원장(석동수 교수)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이 상은 재직중 다수의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교수들간의 학문연구의 귀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학 연구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공로이다.

☒ ...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소장 김윤신 교수)는 6. 28(금) 09:00부터 하이얏트 호텔 리첸시룸에서 「1990년대의 환경보건과 환경대책」에 관한 제2차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주제 I.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연사 : Fengsheng He 교수(중국 산업의학 연구소 소장)

Eiji Yano 교수(일본 제국대학의학부)
Philip Witorsch(미국조지워싱턴의과대학)

권숙표 교수(연세대학교)

주제 II. 실내공기오염의 발생원과 대책

연사 : Helen Garnett 교수 (호주 윌롱공대학)
Sarah Liao 박사(홍콩환경보건전문사)
Christopher proctor 박사(미국조지타운대학)

Lee Kiang Quah 교수(싱가폴건축관리대학)

주제 III. 환경대책의 방향

연사 : Roger Perry 교수(영국임페리얼대학)
Jun Kagawa 교수(일본동경여자외과대학)
김윤신 교수 (한양대학교)
Si Duk Lee 박사(미국환경청)

휴 게 실

濟州島에 대해 남기고 싶은 이야기

시민의원장 鄭 奉 哲

제주도는 옛날부터 三多三無라고 하여 女子가 많고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다는 傳說의 고장이라고 하며 옛날 蒙古人의 後裔라는 말도 있으나 確實한 根據는 알 수 없으며 高梁夫의 三姓이 主宗이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漢拏山(1950 高火山)을 中心으로 洞窟이 많기로도 有名하고 비가 오면 火山바위 밑으로 대개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것도 特徵이다.

그러므로 海岸을 따라 섬 周圍에 居住하는 住民은 地下水開發이 어려워서 地下水取水가 힘든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過去에는 住民이 모여사는 部落마다 湧泉이라는 것을 만들어 地表水가 흘러가는 것을 모아내 溜水를 만들어 食水로써 飲用을 하여 온 것이다.

現代公衆保健學的(疫學的)으로 考察할 때 濟州에서 有名한 모기(Anopheles와 Mansonia)가 밤이면 湧泉溜水의 水面에 앉았다가 便을 排泄하고 낮에는 전부 음거할 것인바 그 물을 생으로 마시면 寄生蟲學的인 痢疾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에 걸리는 것이다. 幼兒들이 所謂 痢疾에 걸려 致死率이 높았고 成人들은 罹病하며 生存하면서 合併症으로써 아메바性 肝膿瘍으로 發展됨으로 近世에 洋醫制度가 定着하면서 아마도 濟州島內에 開業한 醫師라면 肝膿瘍에 대하여 外科醫師가 아니더라도 肋骨를 자르고 肝에서 排膿을 하는 施術을 하지 아니하면 매우 不信